

Digital Shade Analysis System을 이용한 20대 한국인 전치부의 Shade 특성에 관한 연구

김희은*, 조인호, 임주환, 임헌송
(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)

서 론

만족할 만한 심미 보철을 위한 치아의 색조 선택시에는 먼저 자연치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. 전치부의 보철 수복시에는 형태와 기능의 조화도 중요하지만, 심미적 관점에서 자연치 색조의 재현 및 잔존치와의 조화도 중요하다. 대부분 임상에서 치아의 색조 선택은 항상 시각적으로 결정되어 왔고 이러한 방법은 술자, shade guide의 종류, 조명 등의 주위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종종 문제가 된다. 최근에는 치아의 색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색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많은 색조 분석 기구들이 개발되어 왔다.

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digital shade analysis system인 ShadeScan™ System을 이용하여 20대의 건강한 전치부의 색조를 비교 분석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

본론【연구대상 및 방법】

1. 연구대상 및 기구

- (1) 건강하고 수복물이 없는 상악 6전치를 가진 20대 80명 (남녀 각 40명)
- (2) ShadeScan™ System(CYNOVAD, Canada)

2. 연구 방법

- (1) 치면세마
- (2) 상악 6전치의 영상 채득
- (3) Shade map 채득
- (4) 각 부위별 대표 shade 기록

- (5) 결과 분석: 각 치아의 부위별 색조 분포, 좌우 대칭성의 여부,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

결 론

1. 연구대상 치아는 거의 모든 부위에서 A그룹의 색조가 우세하였으며, 남녀 모두 상악 중절치 및 측절치의 middle 1/3과 cervical 1/3에서 특히 다양한 색조 분포를 보였다.
2. 남녀 모두 좌우 견치에 대해서는 A4, C4의 같은 색조분포로 대칭성을 가지며 측절치와 중절치의 incisal 1/3부위에서도 좌우 A2, A3의 색조로 대칭성을 가진다.
3. 상악 견치는 모든 부위에서 성별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절치와 측절치는 middle 1/3과 cervical 1/3에서 성별차를 나타내었다.

이상의 결과로 볼 때 상악 견치를 제외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는 색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며, 성별에 따른 색조 차이도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다소 나타남을 알 수 있다.

임상적으로 기성의 shade guide를 이용한 치아 색조 선택시에는 같은 치아라도 부위별로 다양한 색조가 어우러져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, 여러 계열의 shade 중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A계열의 shade가 자연치의 색조와 가장 유사할 것이라 사료된다.

아울러 향후 digital shade analysis system의 색조 재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